

스포츠동아

2014년 7월 4~5일 주말판 sportsdonga.com 33판



양현중, 4년만에 10승
최근 3연승 에이스 본색
6면

2014 브라질 월드컵 8강 경기 안내 (한국시간)

프랑스	5일 리우데자네이루 01:00	독일
브라질	5일 포르탈레자 05:00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6일 브라질리아 01:00	벨기에
네덜란드	6일 사우바도르 05:00	코스타리카

프로야구 경기 결과 3일

한화 4 : 5 LG	롯데 9 : 10 넥센
SK 7 : 11 NC	두산 3 : 6 KIA

“아시안컵까지 흥명보감독 체제로”

축구협회, 왜 감독 유임을 택했나?

- 1 4년마다 되풀이 되는 감독경질 사태 극복
- 2 월드컵 준비기간 부족... 올림픽 성과 고려
- 3 아시안컵이 당장 내년 1월 현실적 제약도



대한축구협회 허정무 부회장이 3일 서울 중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축구국가대표팀 흥명보 감독의 재선임을 공식화했다.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10승 불발 류현진 투·타에서 빛났다

클리블랜드전 7이닝 무4사구 2실점+2안타1타점 타저스 선발 36연속경기 2볼넷이하 역대 ML타이

LA 다저스 류현진(27·사자)이 3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7안타(1홈런 포함) 무4사구 8탈삼진 2실점의 역투를 펼쳤다. 시즌 방어율은 3.12에서 3.08로 좋아졌다. 타석에서도 2사구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올 시즌 첫 멀티히트를 작성하며 모처럼 '베이루스'다운 매서운 타격 솜씨를 자랑했다. 시즌 타율은 0.138에서 0.194(31타수 6안타)로 올랐고, 시즌 2번째 타점과 4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3-2로 앞선 상황에서 몰러나 승리 요건을 갖췄지만 구원투수 브라이언 월슨의 볼넷세이브로 시즌 10승을 앞두고 2차례 연속 실패하고 말았다.

3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com)는 경기 후 "류현진은 매우 뛰어났지만 다저스가 승리를 하지 못했다"며 "다저스의 첫 4개 안타 중 2개는 류현진의 몫이었다. 마운드에서는 4회초 라인언 레이번에게 투런홈런을 맞은 것이 유일한 결점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는 미국 서부시간으로 오후 12시5분, 섭씨 27도로 다소 무더운 가운데 플레이볼됐다. 다저스 경기를 중계하는 빈 스크린은 "흥과 낮경기에 약한 징크스를 류현진이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는 것이 오늘 경기의 판정 포인트"라며 "4일 간 휴식 후 등판하는 경기에서 류현진은 8승8패에 그쳤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다저스는 아시아계 푸이그, 아드리아안 곤살레스, 핸리 라미레스, 후안 우리베 등 주전들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류현진은 몸이 털 풀린 탓인지 1회초에는 다소 고전했다. 17개의 공 중 직구를 13개 던졌지만 구속은 대부분 시속 140km 초중반에 그쳤다. 1사 후 아스트루발 카브레라에게 커브를 던지자 2루타를 맞았고, 유격수 카를로스 트리우펠의 실책이 이어지며 1사 1-3루의 실점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4번 카를로스 산타나와 5번 안 골스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했다. ▶8면으로 이어집니다

LA시 캘리포니아주 | 손진영 스포츠동아 미국통신원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성적표(1무2패·조별리그 탈락)를 받아든 흥명보(45) 감독이 축구국가대표팀 지휘봉을 계속 잡는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서울 중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허정무 부회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흥 감독의 유임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6월 25일 축구협회와 2년 계약을 한 흥 감독은 이로써 남은 임기 1년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잔여임기 가운데 남은 메이저대회인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릴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다.

브라질월드컵에 선수단장으로 참가했던 허 부회장은 "축구협회는 이 상황이 흥 감독의 개인 사퇴로 매듭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대표팀 수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한 명에게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여겼다. 계속 신뢰하고 지지하기로 했다"고 재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흥 감독은 이날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월드컵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 많은 분들의 비난과 질책을 달게 받아들여 우리 축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왜 유임시켰나?

대표팀이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면 대개는 사령탑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다른 많은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한국축구는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 외신에서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붙여줄 정도로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직은 힘든 자리였다. 역대 월드컵 종료 후 대표팀 지휘봉을 계속 권 감독도 거의 없었다. 1986멕시코월드컵에 나섰던 김정남 감독(OB축구회장) 이후 흥명보 감독이 유일하다. 김 감독은 1986서울아시안게임까지 대표팀을 이끌었다. 1990이탈리아월드컵(이희택)-1994미국월드컵(김호)-1998프랑스월드컵(차범근)-2002한일월드컵(거스 히딩크)-2006독일월드컵(박지성)까지 대표팀 사령탑이 모두 물러났다.

축구협회는 무엇보다 4년마다 되풀이된 '감독 경질'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월드컵 이후 명예롭게 떠난 사령탑은 히딩크 감독(4강)과 허정무 부회장(16강)뿐이다. 2010남아공월드컵 이후에는 조광래 감독과 최강희 감독(전북 현대)에 이어 흥 감독이 대표팀을 맡았

다. 이렇듯 거듭된 감독 교체 과정에서 흥 감독은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동아시아컵을 시작으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다. 허 부회장은 "월드컵이란 큰 대회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1년이란 시간을 부여하면 축구협회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흥명보'라는 한국축구의 큰 자산을 쉽게 사장시켜서도 안 된다는 정서가 유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흥 감독은 선수로서도 가장 성공한 인물일뿐더러 지도자로서도 각종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고 큰 성과를 거둔 한국축구의 대표 브랜드다. 2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축구 사상 첫 동메달의 위업을 일군 이도 흥 감독이었다. 허 부회장은 "우리 축구사에 올림픽 동메달을 딴 건 흥 감독이 유일했다. 비록 이번 월드컵에서 실패했지만 '패배 해본' 사람이 승리할 줄도 안다. 이번 대회를 귀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을 수용하면 훨씬 발전하는 지도자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NAVER DUM 검색창에 바다양분이동태탕 을 검색해 보세요.

전국 190호점 성업중!!

바다양분이동태탕

맛이 다릅니다. 신선함이 다릅니다.

알래스카, 베링 청정해역에서 어획한 신선한 명태만을 사용합니다.
동태탕 맛!! 목숨걸고 최고의 자선합니다.

입종변경 지원목록

1. 점주사중 - 전연천간이 / 돌출간판 / 외부유리벽면 / 신규프래임 내부매뉴판 / 각종현수막 / POP
2. 본사지원 - 영문인 1,2,3,4인용 80개 / 김연천(중, 대) / 신오리(중, 대) / 동태찜 / 분면 / 사쿠 500cc / 케일소프 / 무쇠냄비 / 주걱 3. 전단지(8000장) / 발자 / 명함 / 앞치마 / 유니폼 / 포장봉투 4. 컴퓨터 1대 - 포스시스템(월7000원 무상제공) 6. 조리사 피켓 및 출장조리교육

전국 190 호점 성업중

업종변경 380만원

점주사중 - 간판(간판파일제공)
본사지원 - 그릇, 전단지, POS, 교육 일체 다포함

성공창업포인트

1. 아재값 부담이 진짜로 없다.
2. 마진이 진짜로 높다.(75%이상)
3. 조리가 진짜로 간편하다.
4. 점심, 저녁 매출이 진짜로 높다.
5. 맛은 목숨걸고 진짜로 확실합니다.

www.badajini.co.kr

문의/전/화 1688-4938

토·일 상담가능